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토크쇼(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토크쇼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0 토크쇼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침당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토크쇼(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재)	00 재취업 프로젝트 언니가 돌아왔다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0 VJ 특공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우리가락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닥터 365 35 중흥 S-클래스배 2014 고교동문골프대회(재)
1 30 뉴스 특급	00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20 통일전망대	35 한국의 맛
2 40 직인직설	00 중계방송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35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0 TV속의 TV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글로벌 CEO특강. 청년창업 길을 묻다	00 키오카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0 MBC 경제뉴스 10 아웅다웅 동화나라 40 아하 동물탐대(재)	10 TV 속 움직이는 세상 The 3D(재)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10 시사잔담	00 TV 우치원 콩다공 30 애니월드	30 똑? 똑! 키즈쿨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튜디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가족의 품격 토크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15 KBC 저녁 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배우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사랑만팔래)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팔래)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새로운 100년의 시작 통일한국을 말한다 50 숨터	00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00 월화특별기획 (아정분 일지)(최종)	00 SBS 대기행 (비밀의 숲)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5 우리동네 예제능	15 PD수첩	15 매직아이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TV주치의 닥터 자·바·고(재)	50 국악 한마당 ①:40 KBS 네트워크 사립사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세상의 모든 다크 (지구의 재탄생) ①:40 영상앨범방 신(재)	10 MBC 뉴스24시 20 MBC 100분토론 ①:45 우리집에 연예인이 산다	35 나이트 라인 ①:05 새내포드(재)



TV, 요리에 빠지다

‘삼시세끼’ ‘오늘 뭐 먹지?’ ‘정재형의...’ 등 요리 예능 잇따라

TV가 요리를 권한다. 그것도 남자 스타와 함께. 물론 TV는 예전에도 요리를 권했다. 말 그대로 ‘요리 프로그램’은 수십년 전부터 늘 있어왔다. 당연히 전문 요리사들이 MC와 함께 진행을 했다. 최근 TV는 요리 실력을 별반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는 스타성이 있는 남자 연예인을 섭외해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에 접근하고 있다. 당연히 요리보다 재미가 중요한데, 맛까지 따라온다면 금상첨화다. 지난 2~5월 올리브 TV에서 방송한 ‘정재형의 프랑스 가정식’은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연예계에서 요리 좋아하는 인물이 출연하는 요리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있어 왔지만 ‘정재형의 프랑스 가정식’은 요리의 전문성에 예능의 재미를 한껏 결합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뮤지션 정재형이 9년 간의 프랑스 유학시절 터득한 요리 실력을 자신있게 펼쳐보이는 것은 기본. 요리를 하다 말고 조리대 옆에 갖다놓은 피아노로 윙크하며 연주하거나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끝도없이 미주알고주알 오도방정 수다를 떠는 모습은 그전에 보아오던 요리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가 소개하는 요리 자체가 이국적이었던 데다, 타고난 요리 감각으로 장난처럼 쉽게 똑똑 요리를 해치우고 요리하는 틈틈이 마치 ‘무한도전’에 출연한 것처럼 입담을 ‘떠는’ 모습은 프로그램에 쑥 빠져들게 했다. 올리브 TV는 정재형에 이어 신동

엽과 성시경을 내세워 지난달부터 ‘신동엽, 성시경은 오늘 뭐 먹지?’를 방송하고 있다. 둘이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가진 초대 손님으로부터 요리를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동시에 ‘예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17일 시작하는 tvN ‘삼시세끼’는 아예 요리 문화의 이자 관심이 없었다는 이서진과 옥택연을 강원도 산골로 데리고 가 밥을 짓게 했다. 밥 한 끼 제대로 짓는 일도 알거나 수고롭고 거북한 일인지를 깨우쳐겠다는 의도를 앞세우면서 동시에 ‘정글의 법칙’과 같은 야생 버라이어티가 주는 재미를 노리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15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처음부터 “우리 프로그램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는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선언했다. 대신 음식의 맛도 모르고 음식을 만들 줄도 모르는 두 인기 스타 이서진과 옥택연을 내세워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남성들의 분투를 화면에 담겠다는 것이다. ‘삼시세끼’의 나영석 PD는 이서진과 옥택연을 캐스팅한 것에 대해 “평소 요리에 뜻이 없는 이서진과 요리 예능을 할 욕심이 있었던 데다, 이서진·옥택연이 나란히 유학 파에 도시적인 이미지만 만큼 반전 매력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서진과 옥택연 모두 음식 맛도 모르고, 음식을 만들 줄도 모르지만 요리할 때 만든 과정에 몰입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나와 비슷한 캐릭터로 첫 주연 맡아 다행”

MBC ‘장미빛 연인들’서 백장미 역 한선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상 부부 역할을 그럴싸하게 소화하는 예쁜 아이돌 가수로만 생각했던 그룹 시크릿 출신 한선화(24·사진)의 연기 활동 보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한선화는 지난 봄 SBS ‘신의 선물’에서 조소우를 좋아하는 흥신소 직원을 맛깔스럽게 연기한 데 이어, 지난 8월 종영한 tvN ‘연애 말고 결혼’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의 성형외과 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더니 MBC TV 주말극 ‘장미빛 연인들’에서는 첫 주연을 맡았다. 세련된 도시 여성 느낌의 외양이나 연기 스타일에 큰 변화를 꾀하지 않지만 출연하는 작품마다 대중적인 호평을 받은 덕이다. 한선화는 “첫 주연에 전혀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저만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 대본을 받은 다음 출연 분량도 그렇고, 제가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촬영 초반에는 감을 못 잡아서 상대역인 장우 오빠나 윤재문 PD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한선화가 이번에 맡은 백장미는 한마디로 ‘철없는 공주’다. 의상디자인학과 2학년 학생으로 넉넉한 집안 환경에 딸 바보인 아빠 백만중(정보석 분) 덕에 무탈하게 자랐다. 22살의 순진무구한 이 아가씨는 얼마 친구 아들인 박차돌(이장우)과 불같은 사랑에 빠진 뒤로는 그렇게 따르던 엄마 아빠도 몰라라 한다. 한선화는 “백장미는 호불호가 분명해서 철이 없어 보이지만 스물두 살이 가질 법한 순수함을 잃지 않은 사랑스러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저 자신과 비슷한 캐릭터로 첫 주연을 맡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백장미가 실제 저랑 다른 캐릭터였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스물다섯인데 2, 3년 전에는 정말 장미 같은 면이 있었고 일차원적이고 단순했어.”



그는 또 대학생 엄마를 연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엄마가 아빠를 정말 사랑해서 저를 일찍 낳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조인을 많이 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선화는 이장우에 대해 “현장에 장우 오빠가 있으면 의지할 곳이 있어서 힘내서 촬영하게 된다. 장우 오빠가 정이 많고 제가 연기할 때 놓친 부분들을 잡아내 보여주기도 한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드라마에서는 백장미가 초반부터 달력 박차돌의 아이를 가지게 될 정도로 둘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10 EBS 특강	14:45 코코몽2	19:00 지피이티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신나는 EBS 학교	19:30 EBS뉴스
07:00 코코몽2(재)	10: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EBS 미술기행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중국 음식기행)(재)	15:30 울리비아	20:40 다크 오늘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호수의 나라, 말리위)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재)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칠선바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라임
08:20 두다다콩(재)	13:10 생활백과	16:30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사이틴(Sci-teen)	16:45 콧대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동물기행)
08:50 곰디와 친구들	14:00 두기탐험대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9:05 원더보즈(재)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9:20 출동! 슈퍼잠(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9:35 빼꼼		17:45 두다다콩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 (수학 I)(재)	12:15 7030 피아날 실전 모의고사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0 " (수학 I A형)
02:30 " (영어·듣기)	14:00 " (물리 I)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화학 I)
04:10 " (사회)	15:40 " (생명과학 I)
05:00 " (한국사상)	16:30 " (지구과학 I)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 (윤리와 사상)
06:40 압축탐스런 (화학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A형)(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22:00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20 " (수학5-2)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이 5-2	16:50 " (수학6-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이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강좌	수학집중 5-2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영어 3-2)
10:30 " (역사 1)	18:40 " (수학 3-2)
11:10 " (국어③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1:50 "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12:30 등업산공 (수학1(하))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 (수학2(하))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3:50 " (과학2(하))	22:00 등업산공 (생활3-2)
14:30 " (수학2(하))	22:40 한사능력검정시험 (중급)
15:20 만점왕 (수학3-2)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2
15:50 " (수학4-2)	24:00 백점공략
	24:30 " (과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1일(음 9월 28일 乙丑)

子	3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48년생 한계선을 허용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60년생 치밀 하라. 72년생 동일한 곳에 집중했을 때 실패한다. 84년생 방치한다면 화근이 될 수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94, 28
丑	37년생 여건 조성부터 하고 보라. 49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많음을 감안 하라. 61년생 만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면 더 좋다. 73년생 변화의 시도가 기회를 가져다주리라. 85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70
寅	38년생 아직 실행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때다. 50년생 힘들었을 때 근력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알자. 62년생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하다. 74년생 가능성이 미약하므로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4, 84
卯	39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요구 된다. 51년생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 63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을 이끌 것이다. 75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보면 부담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95, 04
辰	40년생 객관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52년생 한낱 부질없는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64년생 기대 해 왔던 바가 허망해지는 모습이다. 76년생 금전의 활용 여부에 따라 진로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44
巳	41년생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53년생 우연한 행운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77년생 뜻밖의 환심을 보이는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75, 88

午	42년생 무리하지 말고 착신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54년생 다양한 방법의 계발은 생산성을 높인다. 66년생 순발력이 절실히 필요 하느니라. 78년생 적극적이야하면 지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90
未	43년생 떠나려는 이는 붙잡지 말고 찾아오는 이를 막지 마라. 55년생 자름길을 택해서 곤장 가로질러 가야겠다. 67년생 대변한 행동을 보일 때다. 79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응하지 않거나 반하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68, 92
申	44년생 시작은 힘들지라도 중구적으로는 흐뭇하리라. 56년생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격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폭 놓고 있어도 된다. 80년생 지나온 일보다 앞일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행운의 숫자 : 25, 16
酉	45년생 주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겠다. 57년생 꼼꼼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쉽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화가 북이 되어 돌아오리라. 81년생 연행을 무겁게 하라. 행운의 숫자 : 49, 26
戌	46년생 난처한 입장이 되는 국세이리라. 58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 가다가 잡힐 것이다. 70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82년생 지금 수습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9, 50
亥	47년생 좋은 인연의 만남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판도이다. 59년생 차선책을 강구해 두지 않는다면 현태에 임하여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다. 71년생 다중적으로 대응해야한다 83년생 일방적이야하면 무리다. 행운의 숫자 : 82, 3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